

여성문제 현실대안 찾는 페미니즘 연극 선보인다

‘아마조네스의 꿈’ 14일 무대에...“여성임을 적극 긍정하는 작업”

이성욱 기자

여성의 몸과 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페미니즘 연극이 선보인다. 페미니즘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작업과 충실히 병행하고 있는 여성문화예술기획(762-6048)이 14일 인간소극장에 올리는 <아마조네스의 꿈>은 여성의 현실을 ‘폭로해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를 지나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란 대답에 접근하고 있다.

<아마조네스의 꿈>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란 이름으로 유포된 기존의 이분법적 성(Gender) 개념을 해체하는 것에서 답을 찾는다. 해체는 낯선 타자를 빌려 이뤄지고 있다. 그 타자는 에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원 전 삼천년 원시모계사회에서 시공의 블랙홀을 타고 온 젊은 여자다.

유연히 95년의 서울 근교에 오게 된 에테는 여성 인류학자 김인화 박사를 만나 현대문명과 하나씩 만난다. 그 과정은, 생명을 낳고 보살피는 모성이 사회윤리로 확대돼 여성의 몸이 존중되며 평등한 공동체사회에 익숙한 에테와 현

대산업사회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각종 금지와 억압에 길들여 있지만 한편으로 이를 의혹의 눈으로 볼 준비가 돼있는 또 다른 여성과의 충돌이다.

기존 관념을 의혹의 시선으로 볼 준비가 덜 된 관객에게는 이 충돌이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성적 관계에서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에테의 모습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 몸을 즐기는 자위행위, 사랑과 성의 대상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넓혀지는 ‘동성애의 자연스러움’.

남성과의 섹스에서는 즐거움과 생식사이의 선택이 ‘당연히’ 여성으로 옮겨간 모습 등이 상상의 단계를 지나 하나의 현실로 전달된다.

기존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낯설음을 포함해 에테는 여성의 원형적 힘을 훼손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서 왔지만 미래의 적극적인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이는 여성문화예술기획이 보여온 두편의 연극과는 분명히 다르다.

“주체성의 문제를 다룬 <자기만의 방>이나 이를 결혼이라는 실생활을 통해 좀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달리 이번 작품

은 억압의 문제와 더불어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데 우선 자기가 여성임을 적극적으로 긍정해 보자는 작업입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해경(42)씨가 말하는 기획의도다.

바바라 위커의 원작 소설을 재구성하면서 ‘감성의 혁명’을 느꼈다는 작가 전해성(35)씨는 “이전 두 작품이 여성 패배주의의 극복을 패배주의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프다’는 식으로 전개했다면, 이 작품은 억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에테의 시선으로 지금의 여성 현실을 낯설게 봄으로써 현실적 대안을 찾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조네스의 꿈>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지함만큼이나 참여하는 연극인들의 면면도 무게가 있다. 미국과 인도에서 연기와 무술 등을 공부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로 있는 김수기씨가 에테 역으로 귀국 첫 무대를 장식한다. 또 뉴욕주립대학에서 연극학 석사를 취득한 탄탄한 이론으로 깊이있는 무대를 보여온 윤영선씨가 남성 연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여성의 몸과 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페미니즘 연극 <아마조네스의 꿈>.

출가로서 페미니즘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해경 대표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출연하고 있는 박혜숙씨와 함께 인류학자 김인화 역으로 번갈아 출연한다. 이씨는 대학시절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홍세화씨와 연극을 함께 하기도 했다.

사회운동 줄기의 하나이기를 거부하고 긍정적인 여성성을 독자적 세력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최근 여성학을 주도하고 있는 생태학적 페미니즘 색채를 짙게 깔고 있는 <아마조네스의 꿈>은 최근 개봉된 영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함께 여성주의 논쟁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